

제주의 관광산업과 선거

이 경 주

1. 정책에 대한 선택과정으로서의 선거

오는 4월 11일의 15대 총선은 21세기 진입을 눈앞에 두고 넓게는 우리나라 좁게는 제주도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행사이다. 기본적으로 선거 또는 투표는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을 위한 메카니즘의 하나이다. 즉, 특정 문제 또는 쟁점사안(issue)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견해 또는 해결책들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들 모두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불가능하고 단지 하나의 견해(또는 해결책)만이 채택되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메카니즘이 선거인 것이다.

물론 실제 선거에 있어서 선택 대상은 사람들이며,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 지방의회선거, 광역의회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특정의 견해, 즉 정책(policy)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James E. Anderson은 정책을 “문제 또는 관심사를 다룸에 있어 행위자 또는 행위자 집단에 의해 추진될 목적지향적인 행동경로”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 지연·철회·확연 또는 금권·관권 등에 얽매이지 말고 입후보자들의 정책을 엄밀히 비교하여 투표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번 15대 총선에서 제기되리라고 예상되는 이슈에는 정치구조에 대

한 정책으로서 개혁과 보수, 권력구조에 대한 정책으로서 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경제제도에 대한 정책으로서 규제와 시장(규제완화) 등이 있다. 한편, 이와같은 국가 전체적인 쟁점들 이외에 특정지역(예; 제주도)에 관련된 쟁점들이 논의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국가의 입법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출신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의 정책을 홍보·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국회의원들의 선출은 결국 제주도와 관련된 특정 사안들에 대한 정책들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번 선거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이슈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의 支柱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점 및 가능한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총선에서 제주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유도하고, 보다 바람직한 정책들을 도출함으로써 제주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려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2. 제주지역경제와 관광산업

제주도는 94년말 현재 총인구 514천명에 경제활동인구는 254천명이며 취업율은 99.2이다. 한편, 도내총생산은 85년의 7,384억원에서 93년에 2조 5,657억원으로 성장하였으나 그 규모는 전국의 1%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며 제반 경제지표도 매우 열악하다. 그러나 제주도는 천혜의 관광자원, 온난한 기후 및 상대적으로 풍부한 토지, 해안절경 등 관광사업과 농·수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1차 및 3차산업이 발달하였고 이것이 지역경제성장의 원천이 되어왔다. 반면 2차산업은 자체 시장규모의 열세, 동력 및 원료조달, 양질의 노동력 확보 등에서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발전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94년말 현재 1차 및 3차산업이 지역총생산(GNP)의 31.9%와 62.2%를 차지하는 반면 2차산업의 비중은 5.5%에 불과하다.

관광산업은 제주경제의 기본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제주도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시켜왔다. 특히, 80년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민관광욕구의 변화로 관광객이 연평균 16.3%의 높은 성장추세를 보여왔으나 90-94년에는 평균 성장을 5.4%로 둔화되었다. 한편, 여행형태를 보면 가족단위 관광객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희여행객은 감소추세이다. 또한, 내국인 관광객이 약간씩 증가하는 반면 외국인은 감소내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95년 7월까지 관광객 2,373천명에 관광수입은 5,72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10.6%,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산업과 관련된 주요업종으로는 숙박업과 여행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있다. 우선 숙박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94년말 현재 제주도의 숙박시설은 671개소 16,421객실로 전년대비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관광호텔업의 경우는 41개 호텔이 영업중에 있으며 재무구조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이지만 업체수의 증가가 거의 없었고 호텔이용의 대중화 및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특히 94년 중 관광호텔의 영업실적은 전년대비 숙박객수 7.3%, 매출액 13.2% 증가하였으며 객실이용율도 66%에서 70%로 개선되었다.

제주도의 여행업체는 94년말 현재 일반여행업 13개소, 국외여행업 16개소 국내여행업 123개소가 등록중이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지나친 난립으로 과당경쟁 상태이다. 여행관련 운수업체로는 렌트카업체 10개(면허대수 1,658대)와 전세버스업체 12개(면허대수 648대)가 영업중이며 가족관광 및 수학여행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어 업황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업체 및 보유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경우 4개의 골프장, 7개 전문휴양업체, 7개 카지노업체 외에 다수의 승마장 및 사설관광지, 관광음식점 등이 영업중이다. 특히, 최근의 관광형태가 기존 경관감상위주의 정적인 관광에서 동적 관광으로 변모함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다.

3.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전망

제주 지역경제의 특성 중의 하나는 域外수요의존형이라는 것이다. 즉, 지역내 수요의 변화보다 역외수요의 변화가 지역경제성장을 좌우하고 있다. 제주의 관광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변환경의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특히, 제주관광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에는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관광산업의 전망이 결정될 것이다.

우선 부정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1989년의 해외여행 자율화 이후 제주관광수요 특히, 신흥관광객들의 급격한 감소를 들 수 있다. 또한 일본인에 대한 NO-VISA제도의 전국확대 실시, 중국시장의 개방 및 내국인의 중국관광 보편화, UR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관광수요가 분산되었고 이것은 결국 제주도 관광객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또한 대만과의 단교는 동남아 고객수요의 급격한 감소 및 시장다변화의 장애요인이 되었고, 선진 각국이 관광산업을 환경, 첨단산업과 함께 21세기의 3대 주요산업으로 인식하여 이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WTO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관광시장개방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다른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는 없는 여러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시간 반 정도의 비행거리속에 세계 인구의 25%, 세계 경제력의 28%가 집중되어 있다. 이와같이 제주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환태평양시대 또는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력은 세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급속히 신장되어 이들 지역국가와 북미, 대서양선진국 사이에 경제교류와 상호 의존관계가 꾸준히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교류의 증대로 인하여

2000년대에는 태평양경제권이 형성되고 이러한 경제권이 세계경제시장의 중심지로 부상됨에 따라 태평양시대가 될 전망이다. 세계관광기구의 전망에 의하면 21세기는 태평양권 관광산업의 도약을 예견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을 들고 있다 : 첫째, 상용 및 관광목적의 태평양권내 여행이 활발해지고 있다. 둘째, 태평양지역의 항공노선이 빠른 속도로 증설, 증편되고 있다. 셋째, 세계적인 대형호텔들이 태평양지역의 주요도시, 주요 관광지에 잇달아 체인호텔들을 건설하고 있다. 넷째, 중국여행붐이 형성되고 있다. 다섯째, 태평양지역경제협의회 등에 의한 태평양권내 관광발전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태평양권의 관광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관광수요의 증가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관광지로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4. 제주도 관광산업의 주요 이슈

제주도의 경우 과거의 총선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안들은 주로 농어촌(특히, 감귤)문제, 4·3진상규명, 그린벨트의 해제·완화문제, 그리고 관광관련문제 등이었으며, 14대 총선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주요 선거쟁점이었다. 지난 13대 및 14대 총선에서 제주지역 후보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던 공약 즉, 정책방향들 중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들만 발췌한 것이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이번 15대 총선의 경우 예상되는 쟁점으로는 우선 국가적 이슈인 비자금정국을 포함한 「역사바로세우기」 등의 개혁정책, 지역적 이슈로는 도내 기업들의 높은 부도율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지역경제가 될 것이다. 이외에 수입개방 2년째이며 완전수입자유화를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의 감귤문제, 국회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4·3진상규명문제,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이 행해지고 있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추진 등이 선거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는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거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현안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선거이슈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첫째, 관광산업과 기존 산업부문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제주도 관광개발의 기본 방향은 대규모 관광단지 및 시설을 조성하고 이에 외부자본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 관광산업은 성장하였으나 투자의 결과인 관광소득의 域外流出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주도형의 지역개발은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을 무시함으로써 산업관련 파급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산업인 1차 및 2차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동시에 발전시키는 개발전략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제주지역 경제기반의 강화 및 관광의 다양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제주경제의 內發的 개발을 가능케 함으로써 제주경제의 성장은 물론 도민소득 증대효과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와같은 관광산업과 기존 산업간의 연계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모색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1·3차산업간의 연계방안으로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등에 관광특성의 서비스적 성격과 기능을 부가하는 관광연계산업으로의 육성이다. 예를들면, (i) 관광과수단지, 관광화훼단지, 유채재배단지 등의 조성 및 이를 중심으로한 관광농원의 개발과 육성을 통한 농업 관광산업의 연계화, (ii) 관광목장, 관광승마장, 수렵관광의 개발, 양봉산업의 관광토산품화 등을 통한 축산업 관광산업의 연계화, (iii) 표고재배 등의 관광임업, 자연학습원의 조성을 통한 임업 관광산업의 연계화, (iv) 관광어장, 관광낚시터, 수산물 직판장의 조성을 통한 수산업 관광산업의 연계화 등의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제주도의 기간산업은 농업과 관광산업임에 틀림없지만 2차산업(제조업 부문)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된다. 물론 정유공장, 제철공장 등의 공해산업을 육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다운, 즉 관광과 관련된 제조업을 육성하는 2·3차 산업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들면,

세계제일의 관광국가인 스위스는 가장 스위스다운 제조업 (보석가공업, 커피 및 초콜렛 가공업)을 발전시켜 관광과 연계시키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화쇄단지 조성을 이용한 향수산업,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자원인 물을 이용한 음료산업 (예 : 맥주) 등의 제조업이 전망이 밝다. 또한, 정보 통신과 관련된 무공해 첨단산업의 유치도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1·3차 또는 2·3차 산업의 연계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차 및 2차산업 생산물의 관광특산물화 및 이를 통한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수준의 제고, 유통구조의 개선, 관광수요에 근거한 새로운 품목의 개발·생산체제 확립, 官·産·學의 협동체제 구축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산업부문간의 공간적 연계화 및 통합전략으로서 관광단지(또는 지구)와 농어촌지구 또는 공업지구와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간시설(예 : 도로망, 선착장 등)의 확충·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관광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30일 3개 관광단지, 9개 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를 지정, 발표하였다. 이들 사업자가 종합개발계획 목표시한인 2001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힌 총사업비가 32,270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민간자본과 도민이 개발주체로 참여하는데는 자본규모의 영세성, 경영구조의 취약성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제주관광개발에서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참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의 지원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인·허가 절차 및 기타 관광산업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들면 민간투자자들이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예정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입안과정에서 환경분야는 도지사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행정처리기간의 지체 및 민자투자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입안의 협의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제조업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지원 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하면 도내 관광호텔을 제외한 일반호텔 등의 숙박업소와 대형음식점 등은 여신금지업종으로 분류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광단지에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운전자금지원은 제외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관광관련업종 부도 사태의 한 원인이기도 하며 향후 관광산업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도내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관광관련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야 한다. 또한, 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광산업과 기존산업과의 연계개발사업의 진흥을 위한 개발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관광단지(지구) 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세제상의 지원방안으로는 재정경제원에 건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관광사업체, 개발사업 시행자 및 민간자본가(토지 소유주) 등에 대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등의 국세를 감면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준공시까지 법인세를 감면한다거나, 관광단지(지구) 개발과 관련된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광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입기자재에 대한 관세의 감면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제주관광에 기여도가 큰 사업체(예; 향토음식점, 토산품 제조업체 등) 중에서 선별하여 신고세액을 인정하거나 세무조사 면제 등과 같은 보호적인 세무행정을 집행함으로써 稅政지원을 강화하여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세제, 관광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관광정보의 제공은 관광객의 욕구수준 변화에 대응하고,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현재수준은 통신서비스인 천리안과 하이

텔을 통한 단순한 관광정보의 제공과 여행사나 공항 (및 항만)에서의 안내서비스를 통한 여행안내 및 관광시설 소개에 불과하다.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지의 모습과 입장료 및 코스안내, 숙박시설의 종류와 요금 및 예약가능성, 특산물 및 토산품의 종류와 가격 및 구입방법, 관광지 위치와 교통편, 레저 및 스포츠시설의 이용방법, 기타 관광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관광정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주지역의 정보화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각급 기관, 단체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 전역의 정보를 총괄하는 지역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지역종합정보센터를 설립, 도민은 물론 국내 및 국외에 접속해 제주관광을 홍보하는 매개체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체계적인 관광정보 통신망을 구축하여 원활한 관광정보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 인프라의 구축이 가장 시급하며,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정보화 관련기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관광객 수용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세계화·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국제적 관광지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우선, 숙박시설의 경우 국민소득 수준 및 문화시설의 향상 등으로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고급호텔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호텔객실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호텔 증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민박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성수기의 교통편, 특히 항공기의 만성적인 예약난은 제주관광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외국관광객 입도율이 둔화되고 있는

데 이에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제정기항공 노선이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수송 및 잠재적 관광객의 유치에 위해서는 국제 직항노선의 확충을 관계당국에 요청·협의하고, 외국 항공기의 제주취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제주공항의 현재 관광객 수용능력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공항의 건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관광은 「보는 관광」에서 「참여하는 관광」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제주관광의 정책방향도 변모하는 관광행태에 부응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자연경관 및 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레저 및 스포츠시설의 확충은 잠재적 관광객의 유치 및 來道 관광객의 소비증가를 유도함으로써 관광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국제회의시설의 확충 및 국제회의의 유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컨벤션 관광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무한경쟁시대에 제주 관광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관광행정의 국제화와 관광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제주관광의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는 관광부조리 및 관광에 대한 도민의 부정적 인식을 척결하고 관광홍보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광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광교육이 추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관광에 대한 미래예측과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국 (또는 지방)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연구기관의 설립·운영을 통해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5. 정책대안들의 비교·평가에 근거한 선택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선거에는 항상 금권·관권의 개입, 낮은 투표율, 지연·혈연·학연에 의한 선택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가능하지만, 선거쟁점의不在가 중요한 요인이 된

다. A. Downs가 지적했듯이 한 사람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으므로 유권자 개개인은 선거쟁점이나 후보자들의 정책대안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이렇게 선거과정(또는 이슈)에 무관심하다고 해서 선거결과에 대해서도 무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대안은 당선자의 입법활동을 통하여 결국 유권자들에게 되돌아 오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주도적으로 여러 선거쟁점을 제기하고, 입후보자들로부터 정책들을 유도하며, 제시된 정책대안들의 비교·평가에 근거하여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지역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의 관심사(또는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입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그동안 고수익을 유지하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감귤과 관광산업이 UR 및 WTO체제에 따라 태풍의 중심권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제주지역의 이러한 현실상황을 타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이슈로서 (i) 관광산업과 기존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ii) 관광산업 지원체계의 강화, (iii) 관광정보시스템의 구축, (iv)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v)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관광 관련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함께, 이번 15대 총선에서는 구태의연한 정치논쟁이나 거물론, 인물론 보다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도민과 더불어 생각하고 고민하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표 1〉 13대 및 14대 총선의 관광산업관련 공약

구 분	공 약 요 지	공 약 후 보
13대 (88. 4. 26)	관광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중산간지역 관광개발 추진 관광시설의 확충 자연보존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개발추진 관광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특별법 추진 무공해첨단산업의 유치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관광개발계획의 실천 농·축·수산·관광 통계자료의 체계화	
14대 (92. 3. 24)	특별법 시행령·주례 주민의견 최대반영 특별법 폐지 특별법 수정보완 제주도 보존 특별법 제정 무공해 첨단산업 유치 서비스산업기반 조성 외지인 토지보유실태공개·골프장 억제 국민관광지 개발 해안관광도로 개발 자연환경보전 도민주체개발 도민주체 제3개발공사 설립 환경오염 개선 개발재원의 정부지원 확대 1·3차 연계방안 마련	고세진 이기빈 강보성 양승부 양정규 강승훈 변정일 임말시아 현경대 양승부 강승훈 고세진 현경대 고세진 현경대 양승부 이기빈 이기빈 이기빈 강승훈 공통 강승훈 고세진 이기빈 강보성 강승훈 이기빈

주) 13대 총선공약은 제주신문 1988. 4. 1~1988. 4. 26에서 발췌

14대 총선공약은 제주신문 (1992. 3. 22일자)에서 발췌